FX Market Daily

2026-10-14

전일동향

외국인 자금 유출에...1,341.50원에 마감

13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335.10(15:30 기준)에서 1.10원 하락한 1,334.00(06:00 기준)에 개장했다.
환율은 국내 주식시장 외국인 대규모 매도세에 상승했으나, 간밤 뉴욕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달러 약세 압력 받으며 상승분 반납해 1,341.50원에 종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1.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46.48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34.00	1345.80	1334.00	1341.50	1340.50
엔화	847.04	850.11	840.23	846.48	-
유로화	1488.43	1503.79	1486.60	1500.95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6	-2.48	-6.2	-14.66
결제환율(수입)	-0.25	-1.46	-4.32	-11.4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강달러 완화에...1,34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9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45.10, 15:30 기준) 대비 2.05원 하락한 1,342.1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달러 약세 압력에도 위험회피 심리에 낙폭 제한될 전망이다. 간밤 연준 주요 인사인 뉴욕 연은 총재가 연내 추가 금리인상은 1회가 적절하며 내년은 인상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완화적 메시지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3.1bp 하락하며 고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됐고, 달러화 지수는 0.37% 하락한 102.20pt를 기록하며 달러약세 압력을 받았다. 여기에 수급상 수출업체 매도 물량 등이 유입될 경우 금일 환율은 전일 오름폭을 일부 되돌릴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주 약세로 위험회피 분위기가 짙어진 가운데, 전일에 이어 국내 증시 외국인 이탈이 지속될 가능성은 원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금일 밤 예정된 미국 CPI 발표 경계감에 하락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36.50 ~ 1347.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5789.1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05원↓
	■ 美 다우지수 : 51670.1, -180.45p(-0.3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95.6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36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